

학교시설공사 부정부패 뿌리뽑는다

전북교육청-시설공사관계자 간담회... 청렴협약 체결

전북교육청은 오늘 8층 회의실에서 제15차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주만성중 신축공사 등 7개 현장 시공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46명이 참석한다. 이는 맑고 깨끗한 교육시설공사 문화를 조성하고,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상호간 이해를 통한 건설한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235개 현장, 779명과 청렴서약을 체결,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드는 데 앞장서왔다. 그 결과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고 성적을 얻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교육청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학교시설의 감독과 시공자로서 부

실시공 방지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렬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공동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감독자인 도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또 시공자들은 ▲수주 및 시공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 근절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와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 국민 안전을 해하거나 사회적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 ▲친환경 자재 사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 등을 다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시공사와 발주청 감독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이라면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공사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거동이 불편한 전주시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찾아 사랑의 연탄을 나눴다.

전북대 학생들, 소외 이웃에 사랑의 연탄 나눠

노인·장애인 가구에 1200장 전달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이욱현)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전주시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찾아 사랑의 연탄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KOICA 해외봉사 귀국단원 모인 'KOVA' 전북지역 커뮤니티 회원 등 총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지난 8일 아침 서신동과 중노송동의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 네 곳에 연탄 1,200장을 손수 전달했다.

특히 이 행사에 참여한 전북대 학생들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다.

행사에 참여한 권다운 학생(정치외교학과 3)은 "내 손으로 직접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이것이 저개발과 빈곤으로 허덕이는 개도국에까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주송 전주대 LINC+사업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전주대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이 '2018 벤처창업진흥유공자'로 선정돼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주송 단장은 LINC+사업단의 핵심 사업을 '지역 내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중소벤처협회전북지회(이인호 회장)와 함께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을 발족해 CEO 및 재직자 교육 과정(중소벤처리더스아카데미)을 통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 및 교육지원 외에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매개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북 고유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는 전북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해 세계한인경제인협회(OKTA) 유럽 지회 회장단을 초청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주송 단장은 10일 진행된 '전북벤처기업협회 성과보고회'에서 벤처 활성화 공로로 (사)벤처기업협회 회장표창과 전북벤처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가 지난 8일 교내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18 외국인 유학생 시 낭송대회'를 개최했다.

한글의 아름다움 전세계에 널리 알리다

전주대, 국제학생 시 낭송대회 개최... 함께 암송해보는 시간 가져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지난 8일 교내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사)한국감성리더시낭송협회(회장 이형권)와 공동으로 '2018 외국인 유학생 시 낭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이번 시 낭송대회는 전북 시낭송협회 회원들과 전주대 국제학생 간의 멘토-멘티 활동으로 시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됐다.

전북 시낭송협회 회원들은 유학

생들에게 대표적인 한국의 시를 소개하고, 시의 함축적인 의미를 가르치며 함께 암송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 학생들은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한국의 시' 낭송을 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총 15명이 진출했고, 발음과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우수자를 선발했다. 대상은 한민백 시인의 '눈물은 왜 짙가?'를 낭송한 몽골 유학생 바담한드(경영학과 1학년)와 이민정 멘토가 수상했다.

경영학과 바담한드 학생은 "길고 어려운 시였지만, 멘토와 즐겁게 이야기하며,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라며, "이 시를 낭송할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눈물도 흘렸었다"라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이민정(전주시 완산구) 씨는 "우리의 시를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운전직연합회가 회원 1인당 1만원씩 후원을 받아 장학금을 모금해 지난 7일 본청 5층 손님맞이방에서 전달했다.

전북교육청 운전직연합회, 희망 장학금 전달식 가져

전북교육청 산하 운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운전직연합회(회장 차재영, 금마초등학교)는 회원 1인당 1만원씩 후원을 받아 장학금을 모금해 지난 7일 본청 5층 손님맞이방에서 전달했다.

지난 2014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현재 지역별 연합회에서 후원을 받아 작년까지 45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운전직연합회 각 지역 임원들이 함께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랑을 받은 학생이 나중에 커서 사랑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재영 연합회장(금마초등학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의 희망 장학금 전달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학교업무 최적화 지원방안 추진

전북교육청, 내년부터 전주·정읍·부안·진안 4곳 시범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감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학교업무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업무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공통 업무 중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허브(Hub)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 경감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TF팀을 꾸리고 5차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해 왔으며 △교원 호봉재확정 △기간제교원 호봉확정 △학교폭력 업무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지원 △시설공사 계약 업무지원 등 5개 업무를 이관 업무로 선정했다.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전주, 정읍, 부안, 진안 교육지원청 등 4곳을 시범 운영하며, 2단계로 2020년 시범업무

및 적용기관을 확대 운영하며 2021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을 추진하여 교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